

小兒 純陽의 의미

김수미 · 이충열*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Implications of Children's Pure-Yang Characters

Su Mee Kim, Choong Yeol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After the author of "Luxinjing"(顛顛經) explained the children's characters using the concept of Pure-Yang, the term has been widely exploited in the literature of Oriental pediatrics. Its meaning could be summed up in three general categories, namely: Shengyang(盛陽), Zhiyinzhiyang(稚陰稚陽) and Shaoyang(少陽). The implications of Pure-Yang were different in each dynasties of China. By the early Qing(清) period, it meant mostly Shengyang(盛陽), but its meaning moved in the direction of Zhiyinzhiyang(稚陰稚陽) after Wu Jutong(吳鞠通). And this movement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term was largely triggered by the pharmaceutical concerns of doctors as too much medicine of cooling and gastrointestinal effect was used to 'cool off' the over-charged Yang characters(盛陽) of children, causing considerable detrimental side effects to the children's body. The concept of Zhiyinzhiyang(稚陰稚陽) which emphasizes the fragility of children's body thus came in action. The meaning of physiological terms in Oriental Medicine is essentially linked to its clinical applications as we have seen in the case of Pure Yang. In that respect, the recent interpretation of Pure-Yang as Shaoyang(少陽) among physicians in China seems lacking in its crucial counterpart, which is its clinical applications. No theory can prove fruitful in the absence of its practice

Key words : Children, Pure-Yang, Shengyang, Zhiyinzhiyang, Shaoyang

서 론

예로부터 의가들은 부인 1명의 병이 장부 10명의 병보다 어렵고 소아 1명의 병이 부인 10명의 병보다 어렵다고 하여 소아 환자의 진료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¹⁾ 이는 소아가 말을 못하여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소아 체질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 치료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한 것이기도 하다.

당말 송초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顛顛經』, 『脈法』에서 "凡孩子三歲已下 呼爲純陽"이라 하여 최초로 소아에 대해 순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래 '소아 순양'은 대부분 의가들의 소아의 생리와 병리, 질병 치료에 관한 논설에서 언급돼 왔다. 순양을 직역하면 '순수한 양'이 된다. 그러나 과거 의가들이 사용했던 이 용어의 용례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한의학의 음양이 다의적

이듯 이 용어 또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근래 중국에서 소아 순양 개념과 관련된 몇 편의 논문이²⁾ 발표되었다. 이 논문들은 순양의 字義나 과상을 통해 순양의 의미를 밝히고 임상에서의 의의를 살펴 본 짧은 글들이다. 한국에서는 이훈·이진용의 논문에서³⁾ 순양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순양에 대해 전적으로 고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양 개념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순양 개념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아의 생리와 병리, 질병치료를 대해

* 교신저자 : 이충열,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cylee@kyungwon.ac.kr, Tel : 031-750-5419

· 접수 : 2004/01/31 · 수정 : 2004/03/13 · 채택 : 2004/03/29

1) 張介賓, 『景岳全書』「小兒則」, 『欽定四庫全書』46, 대성문화사, 1995, p.7
 "故曰寧治十男子 莫治一婦人 寧治一婦人 莫治一小兒 此甚言小兒之難也."
 2) 吳隨記·劉憲章, "純陽"解, 河南中醫, 1992년 12권 제 2기.
 盛麗先, "稚陰稚陽"和"純陽"理論對兒科學的指導意義, 浙江中醫學院學報, 1982 4기, p. 45.
 唐爲勇, 試論"純陽之體"的含意及臨床意義, 上海中醫藥雜誌(7):33 1981.
 史新明, "純陽"小析, 中醫藥學報, 1990년 1기 21쪽.
 劉聯群, 何謂"純陽"?, 河南中醫, 1990 4기 제10권 총제 58기.
 3) 이훈·이진용, 중국 소아과학의 사적 고찰, 대한 한방 소아과 학회지, 13권 1호, 1999.

논한 의서들과 현대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순양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았고 또 순양 개념에 대한 해석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또 조사 과정 중에 소아에 대한 다양한 호칭과 연령 구분에 대해 정리하게 되어 함께 소개하였다.

본 론

1. 소아시기의 호칭과 연령 구분

1) 소아시기에 대한 다양한 호칭

소아시기에 대한 호칭에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가 사용되었다. 이런 호칭은 대체로 소아시기의 연령 단계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그리고 각 호칭은 소아의 발육단계에서 볼 수 있는 각 시기의 주요 특징을 그대로 호칭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1) 襁褓小兒,⁴⁾ 乳子,⁵⁾ 初生小兒,⁶⁾ 乳下嬰兒,⁷⁾ 初生兒,⁸⁾ 嬰兒初生⁹⁾ - 이런 호칭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아의 가장 어린 단계인 젖먹이 시기에 적용되는 것 들이다.

(2) 嬰兒,¹⁰⁾ 嬰孩 · 芽兒,¹¹⁾ 幼穉¹²⁾ - 어린아이의 특히 연약하고 여린 특징을 강조할 때 쓰였던 호칭들이다.

(3) 童兒,¹³⁾ 童子,¹⁴⁾ 童,¹⁵⁾ 大兒,¹⁶⁾ 童叟,¹⁷⁾ 髫髻¹⁸⁾ - 소아시기의 가장 성숙한 단계를 칭하는 호칭들이며 영구치를 뜻하는 髫髻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4) 小兒 · 孩子 · 孩兒 · 兒 · 小兒孩子¹⁹⁾ - 『顛顛經』에 나타나 있는 이런 호칭들은 어른에 대비하여 소아를 이르는 호칭들이다.

이처럼 내경에서부터 청대 문헌까지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호칭은 다양하다. 이 중 '小兒'란 용어는 소아 시기 중 어느 한 기간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²⁰⁾ 대부분의 의서에서 소아시기 전반을 개괄적으로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2) 소아시기의 연령 한계

한의학에서 소아시기의 연령 한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가 있다.

(1) 18세

『靈樞』『衛氣失常』에서 “伯高가 대답하기를 사람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老라 하며, 20세 이상이면 壯이라 이르고, 18세 이상이면 少라 하며, 6세 이상이면 小라 한다.”²¹⁾라고 하여 인생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²²⁾ 이런 구분에 의하면 小의 시기인 18세 까지를 소아시기로 볼 수 있다.

(2) 14~15세

『備急千金要方』『少小嬰孺方』에는 “6세 이상은 小라 칭하고 16세 이상은 少라 칭한다. 또 30세 이상은 壯이라 하고 50세 이상은 老라고 한다.”²³⁾라고 하여 15세까지를 小의 시기로 잡고 있다. 『小兒衛生總微論方』에는 “마땅히 14세 이하는 소아로서 치료하고, 그 15세 이상 자는 천계가 이미 행하여 혼인을 하니 大人으로 보아 치료한다.”²⁴⁾라고 하여 15세 이상을 大人이라고 하였고 14세 이하를 소아의 범위로 정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 책에서는 천계와 혼인 여부를 소아와 大人을 구분 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아의 연령 한계에 대하여서는 대략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小兒衛生總微論方』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小學』에 의하면, 7세가 되면 남녀 아동은 사랑방과 안방이라는 서로 다른 곳에서 양육되고 성별에 따라 남녀의 성인 역할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성인 역할을 가르치기 이전을 아동기로 보아야 한다는²⁵⁾ 견지에서 7세 까지를 소아기로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생활 풍속과 관계되는 견해로서 의학적인 관점과는 다를 수 있다. 소아의 연령 범위는 『小兒衛生總微論方』에서 설명하였듯이 천계를 기점으로 한 14세 이하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 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생식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²⁶⁾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인 관념에서 이미 소아가 아님을 뜻하기 때문이다. 둘째, 곧 성인이 되기 전 소아의 호칭인 동자의 연령과 천계가 꺾이는 연령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동자의 연령은 위 문헌에서 7~8세 혹은 9~10세 이상이라고만 언급한 경우도 있지만 14세 까지를 말하며²⁷⁾ 동자는 혼인을 하지 않은 아이를 의미한다.²⁸⁾ 그리고 『小兒衛生總微論方』에 의하면 혼인이 15세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니 동자의 나이는 15세 이전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나이는 천계가 꺾이는 나이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4)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幼科要略』,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 732.
 5) 김달호 · 이종형 역, 『素問』, 『通評虛實論』, 의성당, 2001, p. 638.
 6) 『顛顛經』, 『病證』, 『欽定四庫全書』, 6, 대성문화사, 1995, p. 4.
 7) 劉完素, 『保童秘要』,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6, p. 1.
 8) 張介賓, 앞의 책, p. 77.
 9) 錢乙, 김달호 역, 『小兒藥證直訣』, 의성당, 2002, p. 86.
 10) 김달호 · 이종형 역, 『靈樞』, 『逆順肥瘦』, 의성당, 2002, p. 789.
 11) 陳文中, 『小兒病源方論』, 『養子十法』, 『中醫兒科名著集成』, 1997, p. 252.
 12) 葉天士, 앞의 책, p. 734.
 13) 方賢, 『奇效良方』, 『看小兒三脈五脈法』, 商務印書館, p. 1442.
 14) 萬全, 『幼科發源』, 『原病論』, 『萬密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 374.
 15) 徐靈胎, 『醫學源流論』, 『幼科論』, 『徐靈胎醫書全集』, 卷一, 五洲出版社, 1981, p. 120.
 16) 『顛顛經』, p. 6.
 17) 李梴, 『醫學入門』, 翰成社, 1977, p. 119.
 18) 方賢, 앞의 책, p. 1442.
 19) 『顛顛經』, pp. 3, 6, 9.
 20) 葉廷賢, 『壽世保元』,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567. “夫小兒半週 兩歲爲嬰兒 三, 四歲爲孩兒 五, 六歲爲小兒 七, 八歲爲髫髻 九歲爲童子 十歲爲稚子” 萬全, 앞의 책, p. 374.

21) “伯高對曰 人年五十已上爲老 二十已上爲壯 十八已上爲少 六歲已上爲小”
 22)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58에 의하면 『備急千金要方』과 『甲乙經』을 근거로 마땅히 少의 연령한계를 20세에서 30세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23)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少小嬰孺方』, 『欽定四庫全書』, 3, 대성문화사, 1995 p. 131.
 “凡人年六歲已上爲小 十六歲已上爲少 三十已上爲壯 五十已上爲老”
 24) 『小兒衛生總微論方』, 人民衛生出版社, 1990, p. 45. “當以十四以下爲小兒 治 其十五已上者 天癸已行 婚冠既就 則爲大人治耳” 또 여기에서는 “『禮』云... 男子三十日壯有室 又曰男子三十而娶 是古之男子 皆三十已上方娶 故十八以下 得爲小兒之稱 今之時則不然 男不過十五而娶 至十八已有生一二子者 豈得爲小兒也”라 하여 내경과는 달리 14세 이하를 소아라고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5) 조벽희, 『아동발달』, 교육과학사, 2003, p. 7.에서 재인용.
 26) 김달호 · 이종형역, 『素問』, 『上古天眞論』, 의성당, 2001, pp. 14-18. “女子..... 二七而天癸至 任脈通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丈夫八腎氣盛 天癸至 精氣溢海 陰陽和 故能有子”
 27) 李梴, 앞의 책, p. 119. “十一十四歲曰童叟”
 28) 金赫濟 校閱, 『論語集註』, 明文堂, 1986, p. 313. “童子, 未冠者之稱”

서양 의학에서 소아에 대한 개념과 한의학의 개념을 비교하여 보면 서양은 소아의 특징을 성장과 발육으로 보고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과 발육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는 모두 소아의 범위로 잡아 20세 까지를 소아의 연령 한계로 보고 있다.²⁹⁾

이와 달리 한의학에서는 소아를 어린 싹에 비유하여 작고 어리고 연약한 면을 소아의 특징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소아와 대비되는 어른을 나타내는 용어도 한의학에서는 大人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양의학에서는 成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동양은 소아의 외형적인 이미지에서 더 그 특징을 잡았고 서양은 형태보다는 기능적인 면을 특징으로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의 소아는 14~15세 이하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3) 소아시기의 세분

소아시기도 연령에 따라 몇 개의 시기로 세분되었는데 구체적인 시기 구분은 의서마다 달라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의서에서는 소아시기를 크게 兩分하거나 세 시기로 나누기도 하였으며 혹자는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기도 하였다.

『奇效良方』「看小兒三脈五脈法」에는 소아를 7~8세 이내인 純陽과 7~8세 이상인 童子로 크게 兩分하였고³⁰⁾ 『小兒藥證直訣』에서도 소아시기를 크게 갓난아이와 소아로 兩分하여 설명하였다.

『顛顛經』「病證」편에는 막 태어난 아이를 初生小兒라 하였고, 大兒는 적어도 4~5세는 지난 큰아이를 의미하였으며 나머지는(小兒, 孩子, 孩兒, 小兒孩子) 그 사이 연령의 소아를 칭하였다. 『景岳全書』「小兒則」에서도 연령 단계별로 初生兒, 嬰兒, 小兒의 3단계로 구분하여 호칭을 구별하여 사용하였고³¹⁾ 또한 『幼科發揮』「原病論」에서는 소아시기를 嬰兒, 小兒, 童子³²⁾로 『醫學入門』에서도 嬰孩, 齠髫, 童髫으로 각각 3단계로 구분하였다.³³⁾

세분하는 기준은 젖먹이, 齠髫, 大兒등 발육 단계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나누는 경향이 있었으며 『顛顛經』과 같이 약의 복용법 차이에 따라 소아시기를 연령에 따라 나누기도 하였으며³⁴⁾ 『醫學入門』과 같이 맥을 보는 기준과 특징에 따라 나누기도 하였다.³⁵⁾

현대 서양 소아과에서는 소아시기를 출생전기, 신생아기(생후 4주), 영아기(1개월~1년 후 2년까지), 유아기(2세~5세), 학령기(6세~10세), 사춘기·청소년기(11~20년)³⁶⁾로 나누고 있지만 한의학 의서에 나타난 소아 시기는 3단계로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襁褓小兒(初生小兒), 嬰兒, 童兒가 각 단계의 대표적인 호칭이라 할 수 있는데 襁褓小兒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젖먹이를 말하며, 嬰兒는 중간시기, 童兒는 大兒의 개념으로서 7~8

세나 10세 이후의 어린아이를 칭하였다. 襁褓小兒와 嬰兒에 대한 시기 구분은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으나 3~5세를 기준으로 용약을 달리 한 점이나 3세를 기준으로 맥을 보는 방법이나 기준이 다른 점을 보아³⁷⁾ 3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童兒는 『素問』「上古天真論」을 근거로 腎氣實하여 齒更髮長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7~8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2. 순양의 의미

純陽은 '순수한 양'이라는 뜻이지만 소아와 연관지어 의서 중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었다. 의가들이 해석한 순양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盛陽

순양을 순전히 양만 있다고 해석하여 순양을 양이 盛하다는 의미로 해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盛陽은 易寒易熱하는 소아의 특징과 연결시켜 열이 盛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었다.

(1) 『小兒藥證直訣』「四庫全書目錄提要」에는 “소아는 순양의 체질이므로 번거롭게 화를 더하지 말라”³⁸⁾고 하여 『金匱要略』의 영향을 많이 받은 錢乙이 『金匱要略』에 나와 있는 최씨팔미환에서 부자, 육계를 뺀 육미지황환을 소아과의 보제로 삼았다고 하였다.³⁹⁾ 이것은 소아가 순양의 체질로 열이 많으니 구태여 열을 보충하는 약인 부자나 육계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순양은 소아가 열이 많은 특징을 의미한 것이다.

(2) 『外科精要』「癰疽」에서 “무릇 소아는 순양에 속하는데 응저의 병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심기가 열하여 생긴 것이다.”⁴⁰⁾라고 하여, 소아에서 발생한 응저는 心氣의 열로 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런 병기를 소아 순양이라는 체질적 특성과 연결짓고 있다. 이는 순양을 양이 盛하다는 의미로 보아 그 양이 盛한 것을 심화와 연관시킨 것이다.

(3) 『幼幼新書』에서는 “소아는 순양의 체질이라 병이 나면 열로 인한 것이 많고 냉으로 인한 것은 적다. 그 약은 대인에 비해서 약간 차가워야 마땅하며, 溫藥을 쓰는 경우는 때에 따라 줄여야 한다.”⁴¹⁾라고 하였다.

(4) 『保童秘要』에서는 “근골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솜으로 싸놓으면 안에서 응체가 되어 열이 쌓여서 심장을 범하게 된다. 심장이 사열을 받게 되어 경증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경증이 그치지 않게 되면 새로이 조축증이 일어나니, 대개 소아가 병이 나는 것은 순양으로서 열로 인한 것이 많고 냉으로 인한 것은 적다.”⁴²⁾라고 하였으며 열이 쌓여서 심장을 범한다고 하여 순양과 심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5) 『原機啓微』에서는 “부모가 그 순양을 어떻게 하는가? 한겨

29) 홍창의, 『소아과 진료』, 고려의학, 2003, p. 3.

30) 方賢, 앞의 책, p. 1442. “故未滿齠髫之年呼爲淳陽 若齠髫滿後呼爲童兒”

31) 張介賓, 앞의 책, pp. 74~78.

32) 萬全, 앞의 책, p. 374.

33) 李梴, 앞의 책, p. 119.

34) 顛顛經, p. 6. “.....四五歲五九日再服 大兒十丸濃煎米飲下.....”
p. 7. “至五歲每日一丸 十歲每日兩丸.....”
p. 9. “右爲未一歲二歲空心米飲下半錢”, “.....一歲以上空心熟水下一丸 歲五歲服二丸.....”

35) 李梴, 앞의 책, p. 119. “小兒一歲六歲日嬰孩察三關脈 七歲八歲日齠九歲十歲日齠始可一指探三部脈而以一息七八至爲無病 十一十四日童髫一息五六至爲常”

36) 홍창의, 『소아과학』, 대한교과서(주), 2003, p. 15, 16.

37) 『顛顛經』, pp. 3~8.

38) 錢乙, 앞의 책, p. 9. “小兒純陽 無損益火”

39) 錢乙, 앞의 책, p. 9.

40) 陳自明, 『外科精要』, 人民衛生出版社, 1989, p. 89. “凡小兒屬純陽 其癰疽之疾也 多因心氣熱而患之.”

41) 劉昉, 『幼幼新書』,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19. “然小兒純陽 病則熱多冷少 其藥宜少冷於大人爲得 其有用溫藥處 當以意減損之.”

42) 劉完素, 앞의 책, p. 1. “筋骨輕嫩 以綿衣之故 生壅滯內 有積熱乘於心 心受邪熱 乃發爲驚 驚不止 返爲潮搐則爲病也 大概小兒病者純陽 熱多冷少.”

울에도 옷을 입히지 않는다. 부모가 그 오폭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한여름에도 옷을 벗기지 않는다. 부모가 그 몇 번이고 굶주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밥을 먹인 후 다시 강제로 밥을 먹인다. 부모가 그 갈증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젓을 먹인 후 다시 마시게 한다.”⁴³⁾라고 하여, 어린아이들이 열이 많아 추위를 타지 않는 특성을 순양으로 표현하였다.

(6) 『壽世保元』에서는 “소아의 병은 열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아는 순양의 체질을 타고 났기 때문에 장부에서 열이 생기는데 음양의 기가 변하여 밖을 찌기 때문에 身熱이 나게 된다.”⁴⁴⁾라고 하여 소아가 체질이 순양이기 때문에 장부에서 열이 생겨 身熱이 잘 발생한다고 하였다.

(7) 『醫學正傳』에서는 火의 장기인 심장에는 열이 많고 眞水는 부족해서 순양이라고 하였다.⁴⁵⁾

(8) 『奇效良方』 「小兒諸熱須分主治」에는 “소아는 순양의 체질로 허리의 증이 없으니 형이 다르거나 온보지제를 쓰는 경우는 적다.”⁴⁶⁾라고 하여 순양을 소아가 양이 盛한 특징으로 보아 열이 많고 허약한 증이 없다고 하였다.

(9) 『育嬰家秘』 「鞠養以慎其疾四」에서 萬全은 “소아는 순양의 기를 가지고 있어서 음이 없는 것을 싫어한다.”⁴⁷⁾라고 하여 순양은 양이 盛하고 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였다.

(10) 『臨證指南醫案』 「幼科要略」에서 葉天士는 소아가 체질이 순양에 속하여 열병이 많다고 하였다.⁴⁸⁾

(11) 『醫學源流論』 「幼科論」에서 徐靈胎는 소아가 순양지체니 청량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⁴⁹⁾ 하여 순양을 소아가 열이 많은 특징으로 이해하였다.

(12) 『馮氏錦囊秘錄』 「幼科發熱證論」에서 “소아는 순양의 기를 품부 받았기 때문에 혈기가 멎어서 잘 소통되지 않아 장부가 과리를 일으켜서 음양의 기가 변하게 된다. 그런 즉, 안에서 멎치게 되면 밖으로 훈증하게 되어 열이 나게 된다.”⁵⁰⁾라고 하여 순양의 체질이 발열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2) 稚陰稚陽

純이 뜻하는 순수하다는 의미를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연결시켜 어리다는 의미의 稚陰稚陽으로 해석하였다. 현대 중국의 劉聯群은⁵¹⁾ 고증을 통하여 純字를 鈍字의 借자로 풀었고 따라서 『顛顛經』에 나오는 순양의 純字를 鈍字의 借字라고 하여 鈍이 遲와 晚의 뜻이므로 순양이 晚熟의 뜻인 稚陽과 뜻이 같다

고 하였다. 즉, 순양은 양기가 미성숙한 것을 뜻한다. 또한 鈍과 稚가 같은 뜻으로 稚가 晚熟을 뜻하므로 순양이 양기가 미성숙한 稚陽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1) 『奇效良方』에 이르기를 “소아가 비록 음양의 二氣를 받아 그 형은 이루었으나 그 기는 항상 고르지는 않으니 어찌 맥이 있다고 할까? 변증후가 다 끝나 음양의 기가 만족되어야 바야흐로 맥을 볼 수가 있다. 그 髫髻之年에 바야흐로 음양이 생하니 옛날에 남자 7세를 髫라고 하였으니 그 원양의 기가 생기며 여자 8세를 髻이라 하였으니 그 음양이 바야흐로 이루어진다. 고로 髫髻之年이 안된 어린아이를 순양이라고 이른다. 만약 髫髻의 시기가 끝나면 童兒라고 부르니 맥을 볼 수 있다.”⁵²⁾라고 하였다.

남자아이는 7세에 그 원양이 생기고 여자아이는 8세에 그 음양이 비로소 이루어지니, 그 원양 원음이 이루어지기 전인 髫髻之年 미만을 淳陽⁵³⁾이라 한다고 하였다. 즉, 순양은 음양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맑고 순수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2) 『片玉心書』에서 “소아는 순양의 체질이므로 음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 3부 정도는 배가 고프고 시원하게 해주어야 하니 이것이 소아를 쉽게 양육하는 방법이다. 대저 소아는 비기는 항상 부족하고 간기는 유여하니 약성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약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으니 맹렬한 약을 멋대로 쓰는 것은 반드시 금하여야 한다.”⁵⁴⁾라고 하여 소아는 장부 기욕이 연약하여 한열이나 약성이 강한 약에 견디지 못하는 순양의 체질이라고 하였다.

(3) 『溫病條辨』 「俗傳兒科爲純陽辨」에서 “고인은 소아를 순양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양생가에서 하는 말로 아직 음양교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 盛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소아는 양이 어려서 아직 충분하지가 않고 음도 역시 어려서 완전하지가 않다.”⁵⁵⁾라고 하였는데 순양이 뜻하는 것에 대하여 음양교합을 하지 않은 순수한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즉, 순양은 순수하다는 뜻과 함께 음양교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순양은 盛陽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보아 그 당시에 소아 순양에 대한 인식은 盛陽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던 의가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吳鞠通은 『用藥論』에서 말하기를 소아는 음양 2가지 기운이 다 성숙하지 않은 연약한 존재이니 苦寒한 약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⁵⁶⁾

(4) 『馮氏錦囊秘錄』에서는 “천계란 음기를 말한다, 음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순양이라고 한다.”⁵⁷⁾라고 하여 천계가 아직

43) 倪維德, 『原機啓微』, “父母以其純陽那? 故深冬不爲裳 父母以其惡風那? 故盛夏不解衣 父母以其數饑那? 故餽后強食之 父母以其或渴那? 故乳後更飲之” 醫部全錄 17, 대성문화사, 1986, pp. 382, 383에서 재인용.
 44) 龔廷賢, 『壽世保元』,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587. “小兒之病唯熱居多 蓋小兒氣稟純陽 臟腑生熱 陰陽氣變 煎蒸於外 致令身熱也”
 45) 虞搏, 『醫學正傳』, 成輔社, 1986, p. 390. “夫小兒八歲以前曰純陽 蓋其眞水未旺 心火已炎”
 46) 方賢, 『奇效良方』, “小兒純陽 未有虛羸 形瘠之證 溫補之劑寡矣.” 『醫部全錄』: 16, 小兒門 一, 대성문화사, p. 460에서 재인용.
 47) 汪受傳, 『中醫兒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35에서 재인용.
 48) 葉天士, 앞의 책, p. 732. “按襁褓小兒 體屬純陽 所患熱病最多.”
 49) 徐靈胎, 앞의 책, p. 120. “蓋小兒純陽之體 最宜清涼”
 50) 馮兆張, 『馮氏錦囊秘錄』,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 134. “小兒氣稟純陽 血氣壅實 故臟腑稍乖 陰陽氣變 卽聖盛于內 煎蒸于外 乃發熱矣.”
 51) 劉聯群, 何謂“純陽”, 河南中醫, 1990년, 4기 제10권. (총제 587)

52) 方賢, 앞의 책, p1442. “小兒雖受陰陽二氣 成其形氣常未周 何言有脈? 直至變蒸候盡 陰陽氣足 方可看脈 其髫髻之年 方生陰陽 古云男子七歲曰髫 生其原陽之氣 女子八歲曰髻 其陰陽方成 故未滿髫髻之年 呼爲淳陽 若髫髻滿後 呼爲童兒 始可看脈.”
 53) 『奇效良方』에서는 다른 의서와 달리 純陽이 淳陽으로 표기되어 있다. 소아가 순수하고 연약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54) 萬全, 『片玉心書』, 『萬密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 532. “兒純陽之體 陰陽不可偏傷 常帶三分饑與涼 此個孩兒易養 大抵脾常不足 有餘肝氣 須防不寒不熱藥爲良 切忌妄行猛浪.”
 55) 吳鞠通, 『溫病條辨』,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191. “古稱小兒純陽, 此丹家言, 謂其未曾破身耳, 非盛陽之謂. 小兒稚陽未充, 稚陰未長者也.”
 56) 吳鞠通, 앞의 책, p192.
 57) 馮兆張, 『馮氏錦囊秘錄』, “天突者 陰氣也 陰氣未至 故曰純陽”, 周益新, “純陽”의 年齡範圍初探, 浙江中醫雜誌, p. 226에서 재인용.

이르지 않은 것을 순양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순양은 아직 음기가 성숙하지 않은 性的으로 미성숙함을 뜻 한다.

(5) 『魚孚溪醫論選』에서 “소아는 나이가 어리고 衛氣가 충만하지 않아서 순양이라고 한다. 원래 양이 유여하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양이 어리다는 것이다. 稚陽의 양이니 그 양이 얼마나 될까”⁵⁸⁾라고 하여, 순양의 의미를 나이가 어리고 衛氣가 충만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순양을 稚陽이라 하였다. 이것은 소아가 저항력이 약하여 外邪에 잘 침범되는 성질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소아 순양은 의가들이 음양이 성숙하지 않아 어리고 연약하다는 稚陰稚陽의 의미로도 해석하였다. 이 때 순양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보면 순수함을 뜻하는 도교적인 관점과 유사하며, 字義로 보면 ‘陽’보다는 ‘純’字에 그 초점을 맞추어 순수한 아이, 순결한 아이로 해석하여 연약한 특징을 강조한 것이다.

3) 少陽

少陽은 오행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陽氣의 始生과 發生을 의미하는 木과 봄을 의미하기도 하여 생기 왕성한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부 의가들은 소아시기를 인생에 있어 봄에 해당하는 始作期로 생각하여⁵⁹⁾ 純陽을 始生, 初生한 양이란 의미에서 少陽으로 풀기도 하였다.

『中醫兒科學』에서는 “生機는 생명력, 활력을 가리킨다. 生機 蓬勃, 發育迅速은 성장발육과정 중에 있는 소아가 신체적 형태조직은 물론 각종 생리기능방면에 있어 모두 신속하고 성숙 완전한 방향으로 부단히 발전한다는 것이다. 연령이 어릴수록 이런 발육속도는 더욱 빠르다. 현존하는 최초의 소아과 전문서적 『顛顛經』에서 말하기를 ‘凡孩子三歲以下 呼爲純陽 元氣未散’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소아가 선천적으로 품부 받은 신중 원음원양이 아직 손상되지 않아서 生機가 특별히 왕성하고 이로 인하여 生長發育이 극히 신속하다는 것이다. 순양학설은 소아가 生長發育하는 陽充陰長적 과정에 있어서 생기왕성하고 발육이 신속함을 표현하고 旭日之初升 草木之方萌에 비유되어 蒸蒸日上하고 欣欣向榮의 생리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순양은 盛陽도 아니고 또 양만 있고 음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순양학설은 또한 성장 발육이 빠른 만큼 수곡정기가 특히 많이 필요함을 말한다.”⁶⁰⁾라고 하여 순양은 소아가 생기 풍부하고 발육 신속한 특징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中醫兒科學』에서는 소아가 질병 상태에서도 활력이 넘쳐서 쉽게 회복이 되는 생리적인 특징을 순양이라 하였다.⁶¹⁾

이 밖의 중국 대부분의 소아과 책⁶²⁾에서도 순양의 뜻에 대

하여 한결같이 소아가 생기왕성하고 발육 신속한 특징을 말하였으며 질병상태에서 회복능력이 뛰어난 점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소아의 체질적인 특징은 少陽으로 표현될 수가 있으며 따라서 순양을 양이 始生하는 봄의 생기 왕성한 생발력 또는 생명력으로 푼 것이다.

3. 순양 의미의 시대적 변천

앞에서 순양은 크게 盛陽, 少陽, 稚陰稚陽의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순양에 대한 이런 해석은 나름대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 송, 금, 원대의 순양 의미 해석

『顛顛經』『脈法』에서 “凡孩子三歲已下 呼爲純陽”이라 하여 최초로 소아를 순양이라고 표현한 이래 錢乙은 소아가 순양의 체질이므로 열이 많기 때문에 『金匱要略』에 나와 있는 최씨팔미환에서 부자, 육계를 빼고 육미지황환을 소아과의 보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고⁶³⁾ 陳自明은 소아가 응저의 병이 생기는 것은 순양의 체질로 심기가 열하여서라고 하였다.⁶⁴⁾ 劉昉은 소아가 열병이 많은 것은 순양의 체질을 타고 났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⁶⁵⁾ 劉完素 역시 소아가 순양의 체질을 타고 났기 때문에 열로 인한 병이 많다고 하였다.⁶⁶⁾ 송, 금, 원대 의가들은 대부분 순양을 성양으로 열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顛顛經』에서의 순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⁶⁷⁾ 그리고 모든 의가들이 錢乙 등과 같이 순양을 열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朱錦善은 논문⁶⁸⁾에서 소아의 麻, 痘 질환에 대해 寒涼法을 쓸 것인가 아니면 溫補法을 쓸 것인가를 둘러싸고 송대 錢乙과 陳文中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 寒溫 양대 치법은 후대에도 거듭된 논쟁을 거치면서 麻, 痘 질환뿐만 아니라 소아과 질환 전반의 치료의 치법을 설정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

北京中醫藥大學主編, 『中醫兒科學』, 學苑出版社, 1995.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兒科學』, 商務印書館, 1976, p. 3.

山東中醫學院兒科教研組, 山東中醫學院附屬醫院兒科編, 『中醫兒科學』, 山東科學技術出版社, p. 9.

63) 錢乙, 앞의 책, p. 9.

64) 『外科精要』, p. 89.

65) 『幼幼新書』, p. 19.

66) 『保童秘要』, p. 1.

67) 현대 중의 소아과 책들에서는 ‘凡孩子三歲以下 呼爲純陽 元氣未散’에 대하여 ‘무릇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순양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기가 아직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여 소아가 선천적으로 품부 받은 신중 원음원양이 아직 손상되지 않아서 생기가 특별히 왕성하고 이로 인하여 성장 발육이 극히 신속하다고 하였다. (江育仁, 앞의 책, p. 10) 따라서 순양은 소아의 생기 왕성함과 질병 시에 빠른 회복력을 말한다. 하지만 元氣未散을 뒤 문장과 연결시킬 경우에는 ‘무릇 3세 이하의 어린이는 순양이라 칭한다. 원기가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맥을 살피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1寸이내에서 취해야 할 것이나 어른의 맥을 짚는 부분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어 元氣未散이 뜻하는 것은 어른과 똑 같이 맥을 짚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元氣가 흩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어 소아가 장부 기혈이 연약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또한 元氣未散이 뒤 내용 중 소아가 어른에 비하여 맥이 빠른 이유로도 해석이 되어 열이 많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顛顛經』, p. 3. “凡孩子三歲已下 呼爲純陽 元氣未散 若有脈候 卽須於一寸取之 不得同大人分寸 其脈候未來 呼之脈來三至 吸之脈來三至 呼吸定息一至 此爲無患矣 所言定息 呼吸未出 吸氣未入 定息之中 又至此是平和也 若以大人脈 五至取之 卽差矣 如此七至以上 卽爲有氣.....”)

68) 朱錦善, 兒科寒溫兩派學術爭鳴的源流與影響, 中華醫史雜誌, 2002년 4월 32권 제 2기, pp. 94-98.

58) 羅整齊, “小兒年幼 衛氣未充 故曰純陽 原非陽之有餘也 特稚陽耳 稚陽之陽 其陽幾何!” 史新明, “純陽”小析, 中醫藥學報, 1990년 1기, p. 21에서 재 인용.

59) 萬全, “育嬰秘訣”, 앞의 책, p. 450. “兒之初生曰芽兒者 謂如草木之芽 受氣初生 其氣方盛 亦少陽之氣 方長而未已 故曰肝有餘 有餘者 乃陽自然有餘也.”

60) 江育仁, 『中醫兒科學』, 人民衛生出版社, p. 10.

61) 北京中醫學院編寫, 『中醫兒科學』, 貴州人民出版社, pp. 12-15.

62) 江育仁·張奇文主編, 『實用中醫兒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郭孝月, 『中醫兒科學』, 科學出版社, 1996.

廣州中醫學院, 『中醫兒科學講義』, 醫藥衛生出版社, 1968.

汪受傳, 『中醫兒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98.

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錢乙의 순양 해석은 寒涼派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이와는 별도로 溫補派의 관점에서 제시된 해석도 이 시대에 함께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이 시대의 대다수 의가들은 순양을 열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명대의 순양 의미 해석

명대에는 순양에 대하여 稚陰稚陽의 관점으로도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方賢은 음양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어린이를 순양이라 하여⁶⁹⁾ 순양을 음양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고 萬全은 소아가 장부가 연약하여 寒熱에 편중된 약이나 맹렬한 약은 건디지 못하는 특징을 순양이라 하였다⁷⁰⁾. 이것은 소아가 장부 기혈이 성숙하지 않아 연약한 특징을 순양으로 해석한 것이다.

『顏顏經』에서의 순양 개념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盛陽, 稚陰稚陽, 少陽 중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확정해서 해석하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송, 금, 원대 의가들은 대부분 순양의 의미를 열이 많은 특징으로 설명한 반면 명대에는 이전과는 달리 순양을 盛陽뿐 아니라 稚陰稚陽으로도 해석하였다. 앞의 朱錦善에 의하면 원대 이후 명대부터 痘, 麻에 관한 寒溫파의 논쟁은 더욱 깊어져 갔고 이 영향으로 역시 소아과 전 영역의 치료에 있어서 寒溫 논쟁이 치열하였다고 하였다.⁷¹⁾ 순양을 稚陰稚陽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陳文中의 溫補法을 계승한 것이고 여전히 순양을 盛陽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錢乙의 寒涼法을 계승한 것이다.

3) 청대의 순양 의미 해석

(1) 徐靈胎와 吳鞠通

청대 의가들의 순양에 대한 해석은 徐靈胎와 吳鞠通에게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徐靈胎는 역대 의가 중 소아가 열이 많은 존재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보육과 치료에 있어 이런 특징을 주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苦寒하여 약성이 강한 약을 소아에게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단지 약량을 줄여 사용했을 뿐 苦寒한 약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葉天士들은 소아가 열이 많은 존재로 인식하였으면서도 소아가 장부가 연약하다는 면을 항상 고려하여 苦寒하여 약성이 강한 약을 쓰는 데는 주의를 하였으며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徐靈胎는 소아는 맹렬한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아에게 苦寒한 약을 쓰기를 주저하는 것이 오히려 소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⁷²⁾ 徐靈胎는 그 시대 세계에서 소아가 어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얽매어 화평한 약으로만 치료하여 위급한 병태 상황에서 그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吳鞠通은 순양은 양생가에서 하는 말로 음양교합을 하지 않은 순결한 어린이를 이르는 말⁷³⁾이라고 하여 순양에 대해 열이

많다는 과거의 해석을 전면 부정하였다. 소아는 음양의 두 가지 기운이 다 완전하지 못하고 남자는 24세, 여자는 21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음양의 두 기운이 충만해지는데 소아에게 어찌 盛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면서 소아는 양도 어려서 성숙하지 않고 음도 어려서 성숙하지 않은 稚陽未充 稚陰未長이라고 하여 순양을 稚陰稚陽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약을 쓰는데 있어서도 소아의 生氣를 죽이는 고한한 약을 사용하는데 반대하고 酸甘한 약을 쓸 것을 주장하였다.⁷⁴⁾ 이는 吳鞠通이 대표적 온병 학파로서 寒涼한 약을 즐겨 썼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소아에 대하여서는 확실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吳鞠通은 최초로 稚陰稚陽이란 용어를 탄생시켜 장부 기혈이 어리고 연약하여 성숙하지 않은 소아의 체질적 특성을 강조하고 이를 순양의 의미로 제시하였다.

(2) 논의의 결말

소아는 순양의 체질로 열이 많다는데 반드시 苦寒한 약을 써야 할까? 이 문제가 청대의 주요 이슈였던 것 같다. 소아 순양이 열이 많은 특징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가들이 동의했지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치료 원칙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원칙을 고수할 수 없는 면도 많았다. 이에 대한 고민은 陳復正과 葉天士를 통하여 엿볼 수가 있다.⁷⁵⁾ 이런 고민의 결과로 吳鞠通에 의해 순양이 稚陰稚陽을 의미하는 순양지설이 세력을 얻게 되었고 그 뒤 의가들은 대부분 吳鞠通의 관점을 따르게 되었다.

余夢暉는 “眞陰도 허함이 있는데 어찌 眞陽이라고 허함이 없겠는가!.....순양지설에만 얽매는 것은 옳지가 못하다.”⁷⁶⁾라고 하여 순양이 盛陽을 의미한다는 관점에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고 稚陰稚陽의 관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羅整齊는 순양은 稚陽을 뜻한다고 하였고⁷⁷⁾ 이보다 앞서 馮兆張은 순양이란 천계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하여 稚陰의 뜻으로 순양을 해석하였다.⁷⁸⁾

청대의 초기에는 순양은 열이 많음을 뜻하는 盛陽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 관점이었다. 그러나 이 순양학설에 얽매어 고한한 약을 너무 남용한데 대한 폐단을 심각하게 고려한 吳鞠通은 순양이 盛陽을 뜻한다는 순양지설을 전면 부정하고 치음치양설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이후 청대 의가들은 대부분 치음치양설을 따랐다. 따라서 吳鞠通 이후는 순양의 뜻을 과거와는 달리 치음치양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또 “소아병은 허한 경우가 10중 9이고 실한 것은 10중 1이다. 고로 보하는 약을 우

73) 吳鞠通, 앞의 책, p. 191.

74) 吳鞠通, 앞의 책, p. 192.

75) 陳復正, 『幼幼集成』, 『勿輕藥物』,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8. “純陽之子定論 恣投寒苦.” 陳復正은 소아가 純陽의 체질이라는 것을 定論으로 해서 苦寒한 약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小兒의 元氣를 중시하여 小兒 脾胃의 攻伐을 신중히 하였다.

葉天士, 앞의 책, pp. 733, 734. 葉天士는 소아가 체질이 순양에 속하여 열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清熱, 瀉下, 消導시키는 치료방법에 주의를 주었다.

76) 余夢暉, 『保赤存眞』, “眞陰有虛 眞陽豈有無虛. 此又不可徒執純陽之也”, 史新明, 純陽小析, 中醫藥學報, 1990년 1기, p. 21.에서 재인용.

77) 羅整齊, “小兒年幼 衛氣未充 故曰純陽 原非陽之有餘也 特稚陽耳 稚陽之陽 其陽幾何!”, 史新明, 純陽小析, 中醫藥學報, 1990년 1기 p. 21에서 재인용

78) 馮兆張, 『馮氏錦囊秘錄』, 浙江中醫雜誌, p. 226에서 재인용.

69) 方賢, 앞의 책, p1442.

70) 萬全, 『片玉心書』, 『萬密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 532.

71) 朱錦善, 앞의 논문, pp. 95, 97.

72) 徐靈胎, 앞의 책, p. 120. “以草木和平之藥治之 往往遷延而死”

선으로 하여야한다”⁷⁹⁾는 陳士鏞과 錢乙의 육미지황환은 약성이 차가워서 소아의 生氣를 깎으므로 炮制를 더해야 비위 위기의 손상을 면할 수 있다고 溫補法을 주장한⁸⁰⁾ 陳復正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4) 현대의 순양 의미 해석

청대 이후 급격한 시대적 변천을 경험한 현대 중국에서는 순양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다.

근대 중의사인 徐小圃는 순양의 체질이라는 것은 生機蓬勃, 發育迅速한 생리 특징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소아는 陽氣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가 마땅하지 않으면 밖으로는 六淫의 침입을 받고 안으로는 음식에 손상을 입어 병이 나게 되고 陽氣가 손상을 받는 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陽氣가 생리상태에서는 전신의 동력이 되고 병리상태에서는 항병력이 되기 때문에 치료시 溫陽扶正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¹⁾ 즉 徐小圃는 순양을 전신의 활동력이 되고 항병력이 되는 陽氣라고 해석한 것이다.

현대 중의학에서도 역시 순양을 旭日之初升 草木之方萌에 비유하여 소아의 生機蓬勃, 發育迅速, 易趨康復의 특징을 순양으로 표현한다. 생기봉발, 발육신속은 성장과 발육이 빠르고 왕성함을 말하고 이추강복은 질병 상태에서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말한다. 그리고 순양과 별도로 소아를 치음치양에 비유하여 소아가 음양 二氣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질병에 잘 걸리고 쉽게 악화되는 병리적 특징을 치음치양으로 설명하여 소아 체질의 특징을 순양과 치음치양으로 개괄하고 있다.⁸²⁾ 이는 과거 의가들이 순양을 치음치양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였던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현대 중국 의가들은 소아가 장부 기혈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않다는 치음치양의 의미를 순양의 의미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순양에 대하여도 성장이 왕성하고 발육이 빠른 특징이라고 해석하여 순양을 열이 많은 盛陽이라고 해석하였던 과거 의가들과 관점을 달리 하였다.⁸³⁾ 이전까지만 해도 순양이란 한 용어로 소아체질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개괄하였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의가들이 순양이라는 용어 속에서 盛陽과 치음치양을 인식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4. 순양학설의 의의

1) 소아의 체질적 특성과 순양학설의 관계

고대에서 청대까지 의서들을 살펴보면 의가들은 소아가 장부 기혈이 연약한 점에 가장 주목하고 있고,⁸⁴⁾ 아울러 생기가 왕

성하며,⁸⁵⁾ 열이 많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였다.⁸⁶⁾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순양의 세 가지 의미인 盛陽, 稚陰稚陽, 少陽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로 미루어 소아 순양학설은 의가들이 인식한 소아의 체질적인 특징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소아의 어떤 체질적인 특징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순양의 의미가 의가에 따라 달리 해석되던 것으로 보인다.

2) 순양학설의 임상적 의의

현대에는 과거와는 달리 순양을 소아의 왕성한 성장과 발육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질병 상태에서 빠른 회복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순양의 의미를 생리적인 틀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양학설은 본디 임상과 직결된 이론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순양이라는 용어가 『顛顛經』에 처음 나타난 이후로 순양을 盛陽으로 해석하느냐 稚陰稚陽으로 해석하느냐의 논쟁은 寒溫 양파의 대립과 함께 소아 질병 치료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었던 것이다.

소아의 질병 치료에 있어 苦寒한 약을 상용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순양학설을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열병이 많다는 盛陽의 관점에서 보면 寒涼法을 적용해 苦寒한 약을 상용할 수가 있지만, 장부 기혈이 어리고 연약하다는 稚陰稚陽의 관점에서 보면 溫補法을 적용하여야하고 苦寒한 약을 상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소아가 가지고 있는 양 극단의 체질적 특성 때문이다. 이 양 극단 사이에서 소아에 대한 치료 원칙을 고민했던 흔적이 바로 순양학설이라 할 수가 있다.

현대에 와서 순양의 의미를 생발력이라고 해석하여 생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선대 의가들이 고민했던 진정한 소아 순양학설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순양학설이 소아의 질병 치료 방향 설정에 미친 영향은 크다. 소아는 盛陽과 稚陰稚陽 두 가지 체질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순양학설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순양의 의미를 盛陽과 稚陰稚陽, 또는 少陽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나에 둘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선배 의가들의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寒涼法과 溫補法 중 어느 하나 만을 고집해서 치료원칙으로 삼기보다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순양학설을 주장한 의가들의 생

『顛顛經』, pp. 4, 5. “小兒嫩弱”, “藏府脆薄”, “痰理開疎”
 錢乙, 앞의 책, p. 86. “嬰兒初生 肌骨嫩怯”, p. 3. “小兒時期 五臟六腑 成而未全 全而未壯. 易虛易實 易寒易熱”, p. 62. “小兒易虛易實 下之既胃中津液耗損 漸令疳瘦. 小兒之臟腑柔弱 不可痛擊 大下必亡津液而疳”, p. 7. “骨氣未成, 形聲未正, 悲啼喜笑 變態不常”
 陳文中, 앞의 책, p. 252. “小兒一週之內 皮毛 肌肉 筋骨 髓腦 五臟六腑 榮衛氣血皆未堅固 譬如草木萌芽之狀 未 經寒暑 嬌嫩軟弱 今嬰孩稱為芽兒故也”
 張景岳, 앞의 책, p. 80. “小兒氣血未充 而一生盛衰之基 全在幼時 此飲食之宜調而藥餌尤當慎也”
 吳鞠通, 앞의 책, p. 191. “臟腑薄 藩籬疏 易於傳變 肌膚嫩 神氣怯 易於感觸”
 85) 巢元方, 앞의 책, p. 2. “小兒始生 生氣尙盛”
 萬全, 『育嬰秘訣』, 『萬密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p. 450. “春乃少陽之氣 萬物之所資以發生者也 兒之初 生曰芽兒者 謂如草木之芽 受氣初生 其氣方盛 亦少陽之氣 方長而未已 故曰肝有餘 有餘者 乃陽自然有餘也.”
 張景岳, 앞의 책, p. 74. “其臟氣清靈 隨撥隨應 但能確得其本而撥取之 則一藥可愈 非若男婦損傷 積癥癩頑者之比”
 86) 劉完素, 앞의 책, p. 1. “大概小兒病者純陽 熱多冷少也”
 葉天士, 앞의 책, p. 732. “按襁褓小兒 體屬純陽 所患熱病最多”

79) 陳士鏞, 『石室秘錄』, “小兒之病 虛者十之九 實者十之一 故藥宜補爲先.”, 朱錦善, 앞의 논문, p. 98에서 재인용.
 80) 陳復正, 앞의 책, p. 25.
 81) 徐小圃, 『兒科名家徐小圃學術經驗集』, 汪受傳, 앞의 책, p. 20.
 82) 北京中醫學院編寫, 앞의 책, pp. 12-15.
 83) 현대 중국에서는 소아의 체질적 특징을 소양으로 개괄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양은 생리적으로 생기봉발하고 발육신속함을 의미하는 순양의 뜻과 함께 병리적으로는 草木의 初生之嫩芽에 비유하여 발병이 쉽고 전번이 신속함을 나타내는 치음치양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劉勝臣·李素蘭·陳丹, 『中醫師科治療大成』,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8, pp. 18-32
 84) 김달호·이종영 역, 『巖樞』, 의성당, 2002, p. 789. “嬰兒者 其肉脆 血少氣弱 巢元方, 앞의 책, pp. 1, 3. “小兒始生 肌府未成”, “肌府脆軟 便易傷損”, “小兒腑藏之氣軟弱 易虛易實”

각을 잘 이해하여 임상에서 이 두 치료법을 지혜롭게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예로부터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小兒’라는 용어가 성인과 대비하여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쓰였다. 소아의 연령 한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小兒衛生總微論方』 등에서 제시한 천계를 기준으로 한 14~15세까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순양의 의미는 크게 盛陽, 稚陰稚陽, 少陽으로 나눌 수 있는데 盛陽은 소아가 양이 盛하여 열이 많은 특징을 나타내었고, 稚陰稚陽은 그 음양의 기운이 성숙하지 않은 특징을, 少陽은 봄의 생발하는 기운처럼 생기 왕성하여 성장과 발육이 왕성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시대별로 순양 개념이 변천된 것을 살펴보면 송, 금, 원대에는 순양이 대부분 盛陽의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명대에는 盛陽이 주를 이룬 가운데 稚陰稚陽으로 해석하는 의가들이 있었고, 청대에 盛陽을 근거로 소아에게 苦寒 맹렬한 약을 상용하는 폐단이 생기기 되자 중기 이후에는 稚陰稚陽의 관점에서 순양을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현대 중국 의학에서는 순양을 주로 성장과 발육이 왕성한 少陽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순양학설은 첫째, 어른과 구분되는 소아만의 고유한 체질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둘째, 임상적으로 소아 질병 치료에 있어서의 寒溫 양과의 대립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아 질병 치료에 있어 寒涼法을 중시한 의가들은 순양을 盛陽으로 해석하여 苦寒한 약을 사용하는 근거로 삼았고, 溫補法을 중시하는 의가들은 순양을 稚陰稚陽으로 해석하여 溫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순양의 의미를 생리적인 범위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현재의 인식과는 다른 것으로 순양학설은 오히려 소아 임상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문헌

1. 龔廷賢: 壽世保元, 人民衛生出版社, 1996.
2. 김달호·이종형 역: 素問, 의성당, 2001.
3. 김달호·이종형 역: 靈樞, 의성당, 2002.
4. 顛顛經, 欽定四庫全書 6, 대성문화사, 1995.
5. 萬全: 幼科發揮, 萬密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6. 萬全: 育嬰秘訣, 萬密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7. 萬全: 片玉心書, 萬密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8. 方賢: 奇效良方, 商務印書館.
9. 徐靈胎: 醫學源流論, 徐靈胎醫書全集, 五洲出版社, 1981.
10.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11. 小兒衛生總微論方, 人民衛生出版社, 1990.
1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欽定四庫全書 3, 대성문화사, 1995.
13. 倪維德: 原機啓微, 醫部全錄 17, 대성문화사, 1986.
14. 吳鞠通: 溫病條辨, 人民衛生出版社, 1998.
15. 虞搏: 醫學正傳, 成輔社, 1986.
16. 劉昉: 幼幼新書, 人民衛生出版社, 1987.
17. 劉完素: 保童秘要,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6.
18. 劉弼臣·李素卿·陳丹: 中醫兒科治療大成,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8.
19. 李梴: 醫學入門, 翰成社, 1977.
20. 張介賓: 景岳全書, 欽定四庫全書 46, 대성문화사, 1995.
21. 錢乙, 김달호 역: 小兒藥證直訣, 의성당, 2002.
22. 조복희: 아동발달, 교육과학사, 2003.
23. 陳夢雷: 醫部全錄 16, 대성문화사, 1986.
24. 陳夢雷: 醫部全錄 17, 대성문화사, 1986.
25. 陳文中: 小兒病源方論, 中醫兒科名著集成, 1997.
26. 陳復正: 幼幼集成,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27. 陳自明: 外科精要, 人民衛生出版社, 1989.
28. 馮楚瞻: 馮氏錦囊秘錄,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9.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30. 홍창의: 소아과 진료, 고려의학, 2003.
31. 홍창의: 소아과학, 대한교과서(주), 2003.
32. 唐爲勇: 試論“純陽之體”的含意及臨床意義, 上海中醫藥雜誌 (7):33 1981.
33. 史新明: 純陽 小析, 中醫藥學報, 1990년 1기.
34. 盛麗先: “稚陰稚陽”和“純陽”理論對兒科學的指導意義, 浙江中醫學院學報, 1982 4기.
35. 吳隨記·劉憲章: “純陽”解, 河南中醫, 1992년 12권 제 2기.
36. 劉聯群: 何爲“純陽”?, 河南中醫, 4기 제10권. (총제 58기), 1990.
37. 이훈·이진용: 중국 소아과학의 사적 고찰, 대한 소아과 학회지, 13권 1호, 1999년.
38. 朱錦善: 兒科寒溫兩派學術爭鳴的源流與影響, 中華醫史雜誌, 2002년 4월 32권 제 2기.
39. 周益新: ‘純陽’的年齡範圍初探, 浙江中醫雜誌.
40. 江育仁·張奇文主編: 實用中醫兒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41. 郭孝月: 中醫兒科學, 科學出版社, 1996.
42. 廣州中醫學院: 中醫兒科學講義, 醫藥衛生出版社, 1968.
43. 北京市高等教育自學考試委員會組織, 北京中醫學院編寫: 中醫兒科學, 貴州人民出版社.
44. 北京中醫藥大學主編: 中醫兒科學, 學苑出版社, 1995.
45. 山東中醫學院兒科教研組, 山東中醫學院附屬醫院兒科編: 中醫兒科學, 山東科學技術出版社.
46.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兒科學, 商務印書館, 1976.
47. 汪受傳: 中醫兒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98.